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Nashim, Jewish Mishna *

유대교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방안

옥장흠(Jang-Heum 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igins and texts of Judaism Mishnah Nashim, to think from the educational theological perspective, to suggest a method to be applied to Christian education, and to analyze human rights issues in relation to women's marriage life.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up to the compilation of Mishna Nashim in order to analyze the origin and text of Mishna Nashim, and then, the seven Masekott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earcher by dividing them into marriage-related civil law, divorce-related civil law, engagement-related civil law, adultery-related civil law, and vow and pledges related civil law in order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text of Mishna Nashim. Second, in order to analyze Mishna Nashim in educational theology, marriage law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brother-in-law marriage system, chastity system of marriage, divorce law, engagement law, adultery law, and vow and pledge law. Third, to apply Mishna Nashim to Christian education, marriage life education were divided into marriage education and divorce education, vow education and pledge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marriage educa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ristian family. Second, Divorce prevention education is necessary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Third, a spiritually healthy vow education must be conducted. Fourth, healthy pledge education is necessary to live as true Christians. As a result, Korean society still has a deep sense of patriarchal authority, and gender equality is still lagging behind. Discrimination, disparagement, taboos for divorce and remarriage, and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s of women still exist within the church, therefore, Christianity must provide an alternative solutions solutions.

Key Words

Judaism, Mishnah, Nashim, Marriage, Divorce, Vow, Pledg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Received November 26, 2022 Revised December 28, 2022 Accepted December 29, 2022

Author : Jang-Heum Ok,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okch1@hanmail.net

유대교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 방안 *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Nashim, Jewish Mishna

옥장흠(Jang-Heum Ok)**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첫째, 미쉬나 나십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십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나십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콧을 먼저 결혼관계법, 이혼관계법, 약혼관계법, 간음관계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십(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 관계법, 약혼 관계법, 간음 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십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쳐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 주제어 〉

유대교, 미쉬나, 나십, 결혼, 이혼, 서원, 서약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okch1@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융합(hyper-convergence)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었지만, 전 세계는 현재까지 많은 시련과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이다. 이는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었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비인간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2022년 5월 코로나 방역기준의 완화로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로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 감염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기독교의 방향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는 교인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기독교의 신뢰도는 떨어져 가고 있으며, 교회와 교인도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 내부의 문제로서 동성애, 양성평등 등의 문제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감소, 여성 목사안수문제, 한국교회의 여성 지도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무너지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인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영육간에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안이 기독교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연구자는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삶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토라를 확장하여 윤리적인 신학 체계를 마련했으며, 통일성과 논리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힘까지 지닌 공동체의 법률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토라를 마음과 영의 요새로 변모시켜, 그 안에서 안전하고보다 만족스럽게 생존할 수 있었다(Johnson, 2009, 33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정생활의 규범을 유대교 미쉬나의 세 번째 책인 나섬(Nashim)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쉬나의 나섬은 '여인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대인 여성들의 결혼생활에 관한 규정들을 7부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섬(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나섬을 교육

신학적으로 고찰하고,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인권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원과 텍스트의 분석

미쉬나 나십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미쉬나 나십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미쉬나 나십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롯을 첫째, 결혼 관련법, 둘째, 이혼 관련법, 셋째, 약혼 관련법, 넷째, 간음 관련법, 다섯째,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원

유대인들은 로마 네로 황제(서기 54-68년)의 우상숭배 강요와 폭정에 항거하여,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켰지만,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했다(조철수, 2002, 31; 최창모, 1994, 22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반란(서기 66-70년)은 베스파시아누스(Titus Flavius Vespasianus) 황제 시기이고, 2차 반란(서기 115-117년)은 트리아누스(Imperator Caesar Nerva Traianus) 황제 시기이며, 3차 반란(서기 132-135년)은 하드리아누스(Publius Aelius Trajanus Hadrianus) 황제 시기였다. 그러나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 등 많은 건물을 파괴시켰다. 이 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반란군은 처형당했으며,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했다(조철수, 2002, 31). 이때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파와 '젤롯' 그리고 에세네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살아남게 되었다. 사두개파의 오랜 세력의 거점이었던 '산헤드린'도 사라지고 야브네(Yavneh)에서 바리새파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정연호, 2010, 105).

또한, 제2차 성전의 멸망(서기 70년)은 유대교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근본적인 변화는 전에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일체의 정치·종교·사회적 삶의 형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전에서 토라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제사장에서 현자로', '예루살렘에서 야브네로', '다양성에서 규범화로' 모든 생활이 옮겨갔다(최창모, 1994, 209). 성전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거룩한 성소의 그림자'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 기능은 회당이 담당하였다.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회당은 예배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갔다(최창모, 1994, 209).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2성전의 성전파괴는 유대학의 연구와 배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미쉬나가 서서히 수집되기 시작하고 구전 토라(oral Torah)는 책으로 모아져 급기야는 유대학의 연구와 실생활의 지침으로서 성문 토라(written Torah)로 대체하였다. 이 시도는 탄나임(tannaim)들의 불굴의 노력의 결과였다. 탄나임들의 경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신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토라들, 즉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함께 주었다는 믿음이다(배철현, 2012, 6).

구전 율법인 미쉬나가 쓰여진 시기는 서기 1-2세기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그 편집의 과정은 기원후 66년의 유대 대반란(The Great Revolt)이 실패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132-135년 로마에 대항하는 제2차 반란인 '바르 코크바 반란'(The Bar Kokhba Revolt)이 실패한 이후 구전 전승해 왔던 구전 율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어났고, 실제로 20-30명의 랍비들만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랍비 예후다 하-나씨(Judah Ha-Nasi)가 자신의 고향인 벤흐 샤페르트로 산헤드린을 옮기고 그곳에서 떠돌아다니던 구전 율법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에 착수하여 기원후 200년경에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최중화, 2019, 133-134). 이러한 이유로 미쉬나는 탄나임 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다. 탄나임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걸쳐 살았으며, 유대교의 영적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으나,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후 랍비 요카난 벤 자카이(Yochanan ben Zakai)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야브네(Yavne)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최영익, 2008, 100). 특히, 탄나임 시대는 헤롯 대왕 통치 초기, 힐렐(Hillel) 및 샴마이(Shammai)와 함께 시작된다(Steinsalz, 2006, 49). 이 시대는 또한 외부적, 내부적 긴장과 위기의 시기였다.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한 성전의 파괴로 종교 생활 전체 조직의 재구성이 긴급히 필요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단(minim, 특히 영지주의지자들)과 기독교의 발전으로 내적, 종교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백성들은 로마 통치자들에 의해 핍박을 당했다(Steinsalz, 2006, 50).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전은 히브리 성서(Tanakh)와 미쉬나가 있다. 히브리 성서는 성문 토라로 성문 율법으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미쉬나는 구전 토라로서 구전 전승되어온 구전 율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쉬나는 농사와 관련된 법으로 제라임, 안식일을 비롯하여 절기와 관련한 법으로 모에드, 혼인, 이혼, 재혼, 상속 등의 결혼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으로 나섬, 손해와 관련한 민·형사와 관련한 법으로 네지킨, 성전 제사와 제의와 관련한 법으로 코다섬, 정결과 관련한 정결법으로 토호롯 등 총 6권 63부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미쉬나의 세 번째 책인 나섬은 '여인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식 없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수혼에 관련한 법규를 다루는 '예바뭇', 이혼 및 사별의 경우 여성이 지불받게 되는 금액과 관련한 법을 다루는 '케투뭇', 간통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관한 법을 다루는 ‘쏘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이 작성해주는 이혼증서에 관련한 법으로 ‘기틴’, 약혼에 관한 법규로 ‘키두쉬’, 어떤 행위에 대해 금지하겠다는 서원과 서약에 관련한 법규로 ‘네다림’,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성별하는 나실인에 대한 법규로 ‘나지르’의 7부로 구성되어있다.

2. 미쉬나 나섬의 텍스트 분석

미쉬나 나섬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첫째, 결혼 관계 민법으로 시형제 결혼인 예바못(Yebamot)과 결혼문서를 다루는 케투봇(Ketubot), 둘째, 이혼 관련법으로 기틴(Gittin), 셋째, 약혼 관련법으로 약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키두쉬(Kiddushin), 넷째, 간음 관련법으로 간통 문제를 다루는 쏘타(Sotah), 다섯째, 서원과 서원 관련법으로 서원을 다루는 네다림(Nedarim)과 서약과 관련된 법으로 나지르(Nazir) 등으로 분류하여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관련법

(1) 예바못(Yebamot, 수혼)

예바못은 자식 없이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규례로서(신 25:5-10, 룻 4:5, 8), 텍스트의 내용은 1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수혼은 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일 경우에서만 허용되지만, 어머니가 동일한 형제 사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혼은 자녀 없이 사망한 형제에 해당한다. (3) 수혼은 형제가 사망한 후에 태어난 시형제의 경우, 생식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이거나,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약혼자가 사망했을 때도 수혼이 적용된다. (5) 수혼은 시형제가 거절할 경우, 여성이 재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의무에서 면제된다(Yebamot, 2022).

(2) 케투봇(Ketubot, 결혼증서)

케투봇은 결혼증서와 결혼 후의 의무에 대한 규례(출 22:16-17, 신 22:13)로서, 이혼이나 사별시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의 재산에서 받게 되는 몫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텍스트의 내용은 1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케투봇의 복수형은 ‘케투바’로, 혼인의 첫 단계인 에루쉬(키두쉬) 때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케투바는 결혼 관계로 발생하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 및 아내가 가져온 재산 등을 문서에 기록한다. (2) 케투바를 작성할 때, 처녀로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2백 주스(은 50세켈: 신 22:29),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에, 1백 주스를 남편의 재산에서 받게 된다. 이 금액을 케투바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 법

규는 효력이 있다. (3) 2백 주스는 한 사람이 일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편이 쉽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케투바 규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4) 케투바의 금액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할지라도 깎을 수 없으나, 금액을 올릴 수는 있다(Ketubot, 2022).

2) 이혼 관련법 - 기틴(Gittin, 이혼증서)

기틴은 이혼증서, 혼인 관계를 취소하기 위해 남편이 작성해주는 이혼증서와 관련된 규례(신 24:1-4)로서,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이혼증서(게트)의 전달에 대한 효력의 발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노예 해방 문서도 이혼증서의 전달과 유사하다. (2) 이혼증서의 서명, 전달, 기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혼증서를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달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3) 이혼의 상대자인 아내를 의중에 두지 않고 작성한 이혼증서,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4) 이혼증서의 철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5) 공익을 목적으로 양도담보 재산의 지급,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에 대한 경우, 인지력 부족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 이혼증서의 대리 수령, 이혼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7) 이혼증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 유언에 의한 이혼증서, 조건부 이혼증서의 효력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8) 남편이 이혼증서를 건네주는 장소에 관한 내용, 결합이 있는 이혼증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9) 이혼증서로 재혼하는 경우, 증인의 효력, 자기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Gittin, 2022).

3) 약혼 관련법 - 키두쉬(Kiddushin, 약혼)

키두쉬는 혼인의 첫 단계로서 약혼(재혼 포함), 재산분배, 금지된 약혼과 관련된 규례로서(신 22:13; 24:1), 텍스트의 내용은 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자산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2) 약혼의 성립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3) 계율 통용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4) 약혼 무효의 사례들이다. (5) 손상된 결혼들의 후손에 대한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Kiddushin, 2022).

4) 간음 관련법 - 쏘타(Sotah, 간음)

쏘타는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자에 대한 규례(민 5:11-31, 신 20:1-9, 24:5)로서,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간음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신성 재판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다. (2) 신성 재판에 선 여성에게 유죄, 무죄를 판가름하는 쓴 물을 마시는 것을 거부할 권리, 이 상황에서는 케투바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 하고 남편은 쓴물을 마시도

록 강요할 수 없다. (3) 아내가 간통하면 남편은 그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 간통 장면을 증인 한 명 이상이 목격하였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한다. (4) 증인 두 명 앞에서 특정 남성과 외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증인 두 명 이상이 외도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함께 사형(투석형)에 처할 수 있다. (5) 결정적 증거없이 간통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두 증인 앞에서 의심이 되는 남자와 같이 있지 말라고 경고해야만 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에서 세울 수 있다. (6) 어린 압소의 의식에 관한 규정이다. (7)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은 자와 징병 면제에 관한 규정이다. (8) 소타의 신성 재판은 예루살렘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 실행되지 않았다(Sotah, 2022).

5) 서원과 서약 관련법

(1) 네다림(Nedarim, 서원)

네다림은 어떤 행동을 삼가하겠다는 서약과 파기에 대한 규례로서(민 30:2-16), 텍스트의 내용은 11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서약들의 언어로 완곡어법, 어떤 효과도 없는 언어, 제한된 효과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2) 이익을 유발하지 않은 서약,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서약, 어떤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서약, 서약에 있어서 임시적인 한계 등의 구속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3) 서약의 면죄를 위한 근거, 딸의 서약에 대한 취소, 아내의 서약에 대한 취소, 아내의 서약을 폐지할 수 있는 남편의 능력 등 서약의 면죄에 대한 설명이다(Nedarim, 2022).

(2) 나지르(Nazir, 나실인)

나지르는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규례로(민 6:1-21, 신 20:1-9; 24:5), 텍스트의 내용은 9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 나실인이 되는 서약에 대한 언어의 설명이다. (2)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들이다. (3) 나실인 서약의 기간의 유효성에 대한 설명이다. (4) 나실인의 서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5) 나실인이 바쳐야 하는 재물들의 지정과 배치에 관한 규정들을 설명한다. (6)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경우와 마셔서는 안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들이다. (7)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8) 나실인의 시신이나 불결한 것의 접촉에 대한 규정들이다. (9) 나실인이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정이다. (10) 나실인이 금지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규정들이다. (11) 나실인 서원을 종결하는 경우, 재물(속죄제물, 번제제, 화목제물)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12) 나실인으로서 의심이 가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다(Nazir, 2022).

III. 미쉬나 나섬의 교육 신학적 고찰

미쉬나 나섬(Nashim)은 세 번째 책(Seder)으로 여성들이란 의미로서 가족관계의 민사 문제를 다루는 규정으로 결혼과 약혼, 이혼, 간통 그리고 서원과 서약 관련된 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첫째, 결혼 관련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둘째, 이혼 관련법, 셋째, 약혼관련법, 넷째, 간음 관련법, 다섯째,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교육 신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결혼 관련법

1) 시형제 결혼제도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수혼 즉 시형제 결혼의 풍습이 있었다. 구약성서에서도 시형제 결혼 제도가 창세기 38장, 신명기 25장, 그리고 룻기에서 언급하고 있다(김창주, 2008, 15). 이러한 시형제 결혼제도가 제정된 목적은 첫째, ‘출산’을 통해서 가정의 대를 잇는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자녀, 특히 아들이 없는 과부의 보호와 안전에 있다. 특히 과부의 권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혼을 통하여 과부를 보호하고,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시형제 결혼제도는 혈통의 단절을 막고, 재산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과부의 육체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보호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자의 혈통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김창주, 2008, 17-18). 또한, 구약성서의 시형제 결혼제도 역시 자식 없이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로,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는 제도이다(신 25:5-6)”. 그러나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그 여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이 면제된다(신 25:7-10). 그러므로 미쉬나의 예바뭇은 구약성서의 시형제 결혼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형제 결혼제도의 근본 목적은 가문의 대를 잇고, 자식이 없는 과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룻기 4장에 소개되어 있다.

미쉬나 나섬의 예바뭇은 구약성서의 율법을 계승하여 확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일부다처제’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영길, 2020, 102). 특히 결혼과 이혼 관련법이 남성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여성의 민법상 권리와 의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영길, 2019, 130). 첫째, 여성에 대한 법적 권한의 행사가 부친과 남편에게 부여

되어 있다. 여성이 남편에 종속된 소유물처럼 표현되고, 여성에 대한 엄격한 처녀성과 정절이 요구되고 있으며,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이 가부장 사회에 지배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둘째, ‘나습’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재혼이 적극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쉬나 나습의 예바못(Yebamot)은 고대 근동지역의 결혼 풍습인 시형제 결혼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 없이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제도로 ‘출산’을 통해서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아들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제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식이 없는 과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의 결혼과 이혼 관련법은 가부장적이고, ‘일부다처제’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남성 중심의 율법이었다. 구약성서의 일부는 남성 중심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고,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은 고대 근동 결혼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연구자는 생각된다. 따라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여성 신학 관점에서 미쉬나 나습의 예바못을 상황에 맞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혼인의 순결제도

구약성서 출애굽기 22장 16-17절은 영육간에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처녀의 순결을 더럽혔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처녀를 피어서 동침하였다면 그 남자는 반드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다. 이 경우 그 남녀는 둘로 쳐 죽여야 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으므로 딸이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배상을 해야 한다(성서아카데미 2, 2004, 298 참고). 신명기 22장 13절은 혼인의 순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지적하는 규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와 동침한 후에 여자를 미워함으로, 순결을 의심하여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를 실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미쉬나의 케투봇이다. 케투봇은 이혼이나 사별시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의 재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몫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첫째, 처녀의 순결만 문제가 되느냐이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현대 사회의 양성평등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딸의 순결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돈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들에 대한 규례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성한 결혼의 순결을 돈으로 매수하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수정하여 21세기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 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2. 이혼 관련법

구약성서 신명기 24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766-769 참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보잘것없었고,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극히 제한적인 생활을 하였다. 특별히 과부와 이혼녀는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다. 모세의 율법은 당시에 남자의 마음대로 이혼해 버리는 악습에 대해 함부로 여자를 내어쫓지 못하도록 규례를 제정하였다. 성서 시대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거나, 그녀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일방적인 이혼은 할 수 없고, 반드시 아내의 부정 여부를 밝혀내야 했는데, 남편이 거짓으로 아내의 처녀성을 문제 삼아 고소했을 때는 그는 벌을 받고 아내의 아버지께 보통 신부값의 2배를 지불해야 했고, 결코 아내를 추방할 수 없었다(신 22:13-19). 또한, 처녀를 강간했다가 꼼짝없이 결혼하게 된 남자는 아내와 이혼이 절대 불허되었다(창 22:28).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남자들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구두(口頭)만으로도 여자를 내어 쫓을 수 있었다. 이런 악습에 대해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이혼시에 이혼증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개인적인 이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이혼하게 되어도 이혼당한 여자가 이 서류를 근거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혼 율법을 규정함으로써 당시의 무분별한 이혼 풍습을 척결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다시 둘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그 내재된 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혼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은 그 불가피한 경우를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로 한정시키고 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한 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규례와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이혼하여 다시 남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음'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신 22:13-21).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이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아무튼, 남자가 부

인과 이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만 했다. 미쉬나 기틴은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남편이 작성해주는 이혼증서와 관련된 규례로서 이혼증서의 작성과정, 서명, 수령, 대리작성, 효력, 재혼,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혼증서와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고대 근동지역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남성에게 종속되고, 과부나 이혼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 율법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적인 규제를 하였으며, 미쉬나 기틴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3. 약혼 관련법

구약성서에서 약혼과 관련한 규례(성서아카데미 3, 2004, 720 참고)는 첫째, 약혼한 것은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이 취급하였다. 둘째, 약혼하고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 자는 병역의 면제자가 되었다(신 20:7). 셋째, 약혼한 여자와 간통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다(신 22:23-24). 넷째,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할 경우 그녀와 결혼해야 된다(출 22:16; 신 22:28-29). 다섯째, 약혼한 시종과 행음할 경우 두 사람 모두 형벌을 받으며 남자는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레 19:20-22). 여섯째, 약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다(호 2:19-20). 그러므로 약혼은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줌으로써 신부를 취할 권리를 얻고(삼하 3:14) 그런 후에 법적인 남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진실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신랑으로 자신을 언급하신다(호 2:19-20). 그런데 여기서 약혼의 주체는 남자이고 여자는 객체이다(신 28:30). 이는 고대 근동지역의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748 참고). 따라서 이스라엘 약혼의 풍습은 여성을 그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음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며, 약혼의 주체가 남성이고 여성을 객체로 취급하는 것은 양성평등 제도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미쉬나 나섬의 키두신은 구약성서의 내용을 더 세부적인 생활의 지침으로 설명하고 있다. 키두신의 제도는 혼인의 첫 단계로서 약혼(재혼 포함), 재산분배, 금지된 약혼과 관련된 규례로서 5가지 법규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산의 취득, 약혼의 성립 절차, 율법 통용의 범위, 약혼 무효, 손상된 결혼들의 후손에 대한 지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혼이란 반드시 결혼으로 맺어져야 할 맹약이었으며, 남성과 여성 부모들의 양가끼리 서로 의논하여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였다. 이때 결혼의 약속은 몇 번이고 취소될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약혼을 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약혼 때는 신랑 쪽에서 그 약혼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해 예물이나 돈을 신부

측에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는 돈으로 여성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결혼 제도라고 할 수 없다.

4. 간음 관련법

구약성서 민수기 5장 11-31절 내용은 가정에서 부부생활과 관련된 법으로 아내의 간통으로 의심된 혐의에 대해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80-82 참고).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의심했을 경우 제사장 앞에서 아내에게 쓴 물을 마시도록 하는 판결법이 있었다. 그 판결 방법에 따라 아내의 간통행위를 판결하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법으로 판단되며,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범죄는 증거를 원칙으로 하는 재판주의와 비교되는 것이다. 미쉬나 쏘타는 간음으로 의심되는 여자에 대한 규례로서, 간음으로 의심되는 아내에 대한 재판의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쓴 물을 마심으로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남편 역시 쓴물을 마시도록 강요할 수 없다. 간통의 장면을 목격당하였으면, 재판없이 이혼해야 한다. 증인 두 명 앞에서 남성과 외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외도를 목격하였다면, 여성과 그 남성은 투석형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미쉬나 쏘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간통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으로 남성은 이 법에서 자유롭게 보인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남성도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

5. 서원과 서약 관련법

1) 서원(네다림, Nedarim)

미쉬나 네다림은 어떤 행동을 삼가겠다는 서약과 파기에 대한 규례로서, 구약성서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일상생활의 규범을 제시하고 서약들의 언어, 서약에 있어서 구속적 효과, 서약의 면죄를 위한 근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구약성서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 과부나 이혼녀가 서원했을 경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할 경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373-375). 그러나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하고 미성년인 딸이나 결혼한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그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의 딸을 둔 아버지나 아

내의 남편이, 서원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되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 남자의 대표성을 철저히 인정한 것으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솔한 서원이나 무분별한 언사로 허물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였다(레 5:4). 그러나 딸이나 아내가 서원한 것을 묵인하고도 그것을 나중에 금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남편이 자신의 서원을 파약(破約)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대가를 담당해야만 했다. 이것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을 책임성 있게 이끌어가야 할 가정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다. 즉 가정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창 3:17) 가족의 도덕적, 영적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나 남편에게 매여있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들의 처지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미쉬나 네다림은 어떤 행동을 삼가하겠다는 서약과 파기에 대한 규례로서,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일상생활의 규범을 제시한 것이다. 서약들의 언어, 서약에 있어서 구속적 효과, 서약의 면죄를 위한 근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맹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이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 중심 규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원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나실인(나지르, Nazir)

구약성서 민수기 6장 1-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나실인이 될 수 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91-95). 이때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민 30:1-16). 부모가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거나(삼상 1:11)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라고 지시하는 경우이다(삿 13:5, 7). 나실인의 종류는 서원한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과 일평생 동안 헌신하는 나실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한 나실인들은 특별히 규례를 지켜야 한다. 평생 나실인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했던 나실인은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회중 앞에서 의식을 행한다. 곧 하나님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며 번제와 소제, 속죄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린다(민 6:14-17, 21). 그리고 그 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 앞에서 불태운다(민 6:18-20). 이러한 의식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부지 불식간에 지었을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기

도 하다. 그 외에도 자신이 이제 나실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쉬나 나지르(נָזִיר)는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규례로, 나실인이 되는 서약,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의 유효성, 나실인의 서약을 무효화 되는 경우, 나실인이 바쳐야 하는 재물들의 지정과 배치,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경우와 마셔서는 안되는 경우,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 나실인의 시신이나 불결한 것의 접촉, 나실인이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나실인이 금지해야 하는 것들, 나실인 서원을 종결하는 경우, 나실인으로서 의심이 가는 것들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실인 규정은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받아 나실인 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IV. 미쉬나 나섬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방안

미쉬나 나섬은 고대 근동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율법이 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첫째, 결혼생활교육, 둘째, 이혼예방교육, 셋째,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생활교육

유대인들게 있어서 결혼이란 매우 성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은 선지자 시대부터 하나님이 중개한 계약으로 여겨져 왔다. 결혼이라는 말에는 항상 거룩, 또는 크두샤(kedusha) 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결혼 예식을 히브리어로 ‘키두신(kiddushin, 神聖化)’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대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Kolatch, 2009, 40-41). 미쉬나 나섬을 통해서 현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몇 가지 풍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유대인의 삶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인류의 번성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대 랍비들은 ‘부부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면 토라를 연구하는 것

조차 멈추라'라고 규정하고 있다(Ketubot, 17b),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탈무드에서도 “아내가 없는 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과 행복도 없다(Yevamot, 62b)”라고 기록되어 있다(Kolatch, 2009, 41). 둘째, 유대인들은 근친 혼을 금하고 있다. 이유는 그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다(Kolatch, 2009, 43). 셋째, 제사장 가족(Kohayn)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성전 안으로 가져가는 희생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제사장 종족 역시 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못 되므로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나 개종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Kolatch, 2009, 43). 넷째, 유대인들은 다른 종족과 결혼할 수 없다. 유대인이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은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Kolatch, 2009, 44). 그 외에도 다양한 풍습이 있다. 그러나 고대 근동지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의 규범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혼에 대해 그대로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결혼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김규식(2013)은 루터와 칼빈의 결혼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혼생활을 선물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생활이 풍성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문과 교육을 담당해주는 기관이 교회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결혼생활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결혼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목적에 위배할 때에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타당하지 않은 이혼의 결정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망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하고, 타당한 이혼의 경우에는 막연한 죄책감보다는 이혼 후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을 교회가 함께 돌보고 이혼 후에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규식, 2013, 390-391). 둘째, 기독교의 가정이 되기 위해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부는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부부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즐거움보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부는 서로의 깊이 뿌리박힌 습관의 상호작용으로 영커어 있어 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김광률, 2009, 177-178). 기독교인들의 부부 관계요인은 첫째, 기독교적 정체감으로, 자기이해, 결혼영성, 둘째, 기독교적 친밀감으로 의사소통, 일, 위기, 갈등, 돌봄, 헌신, 영성적, 성적, 정서적, 지성적, 심미적 친밀성, 용서. 셋째, 기독교적 헌신으로 가치, 성숙, 애착, 신뢰, 그리고 노력, 넷째, 영적 요인들로, 책임지는 사랑, 겸허-자기를 비우는 사랑, 신뢰, 돌봄, 관리, 화해, 용납 등(김광률, 2009, 173)이다. 그러나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유들을 보면, 부부관계 만족도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규식(2010)은 인지 행동적 모델을 통해서 부부상담 모델과 부부 신앙교육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부관계를 심각한 병리적 관점에서 치료적 중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부부의 성장과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지적 행동모델이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지 행동적 모델이 부부의 인지와 정서 및 행동의 세 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부부신앙교육과 적절히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규식, 2010, 422-423).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미쉬나 나섬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나 이혼을 당한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이나 재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문화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혼의 예비교육,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이 필요하다.

2. 이혼 예방교육

유대교에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섬은 이혼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쉬나 나섬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혼의 풍습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이혼은 부정한 행위이다. 랍비들은 탈무드에서 결혼이 신성한 계약인 반면, 이혼은 부정한 행위라고 말한다. 성서 말라기서는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찌기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말 2:14)”라고 하였다(Kolatch, 2009, 60). 둘째, 여자는 이혼을 제안할 수 없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내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미쉬나의 율법이 생겨났다(Kolatch, 2009, 60). 셋째, 이혼할 때 이혼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혼서류의 히브리어는 켓(Get)인데, 권위 있는 랍비들은 이 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대교에서는 남편과 아내

가 법적인 계약을 통해 결혼을 이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Kolatch, 2009, 61). 넷째, 이혼 서류는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한다. 이 관습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랍비들은 이혼 서류(켓)는 서기관이 손으로 쓴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결혼 서류인 케투바(Ketuba)가 처음에 손으로 쓰인 서류였으므로 이를 무효화시키는 데에도 손으로 쓴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서류는 작성할 때와 전달할 때에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Kolatch, 2009, 61).

이혼에 대한 규정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미쉬나 나섬에서도 언급이 없다. 이것은 성서나 미쉬나의 율법이 이혼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을 보장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였다고 연구자는 본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혼자된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쉬나 나섬의 율법은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그 양면성은 수혼(예바못, Yebamot), 결혼증서(케투봇, Ketubot), 간음(쏘타, Sotah), 이혼증서(기틴, Gittin), 약혼(키두쉬, Kiddushin) 등 다섯 마쉬콧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고대 근동지역의 결혼의 풍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은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의 재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몫에 대한 것, 여성의 재혼에 관한 권리, 가정 파탄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 이혼의 악습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는 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이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대교 결혼 풍습을 반영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쉬나 나섬과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혼의 비율은 높아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재혼을 하는 비율 역시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미쉬나 나섬에서도 여성의 경제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이혼여성들은 실제로 노동시장의 참여는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비정규직과 같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취업여부와 고용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군에 몰려있는 이혼여성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정형의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주생

계 부양자를 상실한 이혼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쉽게 예측된다(김혜영 외, 2008, 59). 이에 대한 대책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혼교육은 대체로 법원과 연계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걸쳐서 협력적 부모관계 형성의 중요성과 이혼 후 부모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수정, 2008, 2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에게 적절한 이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혼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우리나라 이혼가족들이 경험하는 이혼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이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이혼가정에서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와 관계하는 기술 등을 인지시키고 습득하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 숙려기간 중에 있는 부부들에게는 이혼으로 인한 당사자 자신이나 자녀의 변화,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 습득, 이혼 후 생활계획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5) 법원과 연계된 상담 및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김수정, 2008, 21-28 참고). 넷째,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자들을 위한 목회적 측면에서 상담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이혼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이혼 증가 현상이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따른 가족의 구조,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 제도가 아닌 개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부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제도적 규정이 아니라 부부 각자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3) 도덕적 접근이 아닌 성장지향적 접근이어야 한다.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부부관계에 대한 소망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를 성숙한 인격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4)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변형시키야 한다. 교회는 이혼 후 위기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언약이 주는 관계와 의미를 통해 개인은 욕망이 아닌 인격적 자아를 발견하며, 언약에 의해서 관계는 안정과 신뢰를 얻는다. 여섯째,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비 부부 교육, 혼전 상담 등을 통하여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 올바른 결혼관, 건설적인 부부 관계를 독려하고, 부부관계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부 관계의 성숙을 도움으로써 부부들 스스로 자신들의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이혼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홍영택, 141-144).

3.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서원과 서약은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로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원을 위한 교육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서원을 위한 교육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신 23:22). 그러나 일단 서원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신 23:21, 23; 전 5:4)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만 했다(레 19:12). 그래서 성경은 서원할 때는 분별없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전 5:5; 잠 20:25). 어쨌든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행해야만 한다(민 30:2; 시 15:4).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경고를(마 24:33)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행 18:18). 한편 이러한 서원 규례는 이미 레위기 27장 1-29절에서도 언급되었다(성서아카데미 3, 2004, 375).

구약성서에서는 서원을 네 가지의 서원을 소개하고 있다(박주희, 2006, 5-7). 첫째,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한 서원이다. 이 서원은 성서에서 세 가지의 사례가 서술되어 있다: (1) 야곱의 벤엘서원이다. 야곱은 벤엘에서 자신의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청하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과 자신 소유의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이다(창 28:20-22). (2) 입다의 서원이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이다(삿 11:30-40). (3) 한나의 서원기도이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통해 약속을 하는 서원이다(삼상 1:11).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서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감사와 자기희생이 포함된 자발적이고 헌신의 서약이다(시 132). 셋째, 금지의 서원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서원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

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민 30:2). 넷째, 나실인의 서원이다. 나실인의 서원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성별하는 행위를 통해서 서원하는 법으로 여성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으며, ‘네지라’라고 부른다.

이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대교 나שמ에 나타난 서원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구약성서에서 나타난 서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야곱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서원을 드려야 하고 그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서원은 무분별적인 서원은 삼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서원은 금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구약성서의 사례로 입다의 서원이 있다. 입다는 암몬자손과의 전투에 앞서서 승리를 거두게된다면,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다. 아마도 입다는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 해결 방식에 더 집착하였으며, 그의 서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작용을 방해하고 정지시켰고 외동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빚었다(안근조, 2016, 251). 셋째, 서원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미쉬나 나שמ에서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이 서원이 무효가 된다. 미쉬나가 편입되었던 시기가 고대 근동지역의 풍습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 중심 규범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서약을 위한 교육

구약성서에서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의 불결함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제사장직을 지배하는 중요한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나실인의 규정은 민수기 6장 1-21절에 제시하고 있다. “나실인으로 서약을 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해야 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못하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주께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민 6:3-8),(성서아카데미 3, 2004, 91-96). 미쉬나 나שמ의 나지르는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규례로, 나실인 서약의 언어, 서약을 하는 경우, 서약의 기간, 서약의 무효화, 바

쳐야 하는 재물들, 포도주의 음용, 머리를 자르는 행위, 불결한 것의 접촉,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금지해야 하는 것들, 서원을 종결하는 경우와 재물, 의심이 가는 것들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기 서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쉬나의 나실인은 성별에 구분없이 서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나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이 해체되기 때문에 함부로 서약을 할 수 없다. 이제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대교 나실에 나타난 서약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서약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신앙유산 서약이 있다(박남일, 2021, 56): (1) 신앙인의 가정으로 가정예배를 드린다. (2) 신앙의 가훈에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3)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는 가정이 된다. (4)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된다. (5) 복(福)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된다는 신앙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둘째, 혼전 순결서약서이다.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음 사실을 간직하면서 순결을 지켜 나가야 한다: (1) 진정한 사랑은 미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시 127:3), (2) 진정한 사랑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벧전 3:7; 히 13:4). (3) 진정한 사랑은 교제 중인 사람을 위한 것이다(롬 13:10), (4)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고전 6:18-20), (5)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마 22:37-38; 요 14:15). 셋째, 성직자가 되기 위한 서약이다. 야곱이 세겔에서 서약한 것처럼 성직자가 되기 전에 우상적인 것은 모두 물어버리고, 야곱이 세겔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과 서약을 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나실인처럼 살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서약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V. 나가는 말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기독교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교회와 교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 내부에서는 동성애 문제, 양성평등문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여성목사 안수문제, 한국 교회의 여성 지도력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인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독교인들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안이 기독교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연구자는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삶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십(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으로 고찰하고,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인권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미쉬나 나십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십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어서 미쉬나 나십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롯을 가족관계의 민법을 다루는 내용으로, 먼저 결혼관련법, 이혼관련법, 약혼관련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십(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관계법, 약혼관계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십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대교 미쉬나 나십은 편집 당시의 고대 근동의 법규들이 반영되어 가부장 질서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국으로 비슷한 관습을 공유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고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대 공동체 삶의 근간을 형성한 구약(히브리 성서)의 모세 율법은 부계혈통, 일부다처제, 남성 위주의 혼인, 상속, 성의 통제 등을 드러내고 있다(이영길, 2020, 97).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유대인의 결혼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미쉬나 나십은 남편을 잃은 여성이나 이혼을 당한 여성들이 경제적 능력이나 재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문화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혼의 예비교육,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유대교에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이혼한 여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이혼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역시 한국 교회가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곱이 벵엘에서 자신의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과 자신 소유의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이나, 한나가 기도

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통해 약속을 하는 서원은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서원을 드려야 하고 그 서원한 것을 잘 지키는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참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과 서약을 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신앙유산 서약, 혼전 순결서약, 성직자가 되기 위해 세상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나실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서약 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쳐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그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이영길, 2019, 140).

참 고 문 헌

- 김광률 (2009). 기독교인 부부 관계요인과 증진 프로그램 개관. **기독교교육논총**, 20, 155-182.
- [Kim, K. Y. (2009). A Study on their Bonding Factors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s in Christian Coupl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0, 155-182.]
- 김규식 (2010). 인지 행동적 부부상담 모델과 부부신앙교육의 통합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4, 395-428.
- [Kim, K. S. (2010). An Integrative Study between Cognitive Behavioral Model and Faith-oriented Education for Coupl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4, 395-428.]
- 김규식 (2013). 루터와 칼뱅 결혼관의 교회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논총**, 36, 369-394.
- [Kim, K. S. (2013). Church-Educational Implications of Luther's and Calvin's Views of Marriag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69-394.]
- 김수정 (2008).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를 위한 미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한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 **신학과 목회** 30, 1-29.
- [Kim, S. J. (2008). An Investigation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in the USA: Implications for the Developing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in Korea. *Theology and Ministry*, 30, 1-29.]
- 김창주 (2008). 시형제 결혼의 신학적인 의미: 다말과 룻의 경우. **구약논단**, 14(2), 10-28.
- [Kim, C. J. (2008). The Levirate Marriage Tamar and Ruth.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4(2), 10-28.]
- 김혜영, 변화순, 윤희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Kim, H. Y., Byun, H. S. & Yoon, H. S. (2008). Divorce and poverty in women: Focusing on Changes in Occupation and Income. *Family and Culture*, 20(2), 37-63.]
- 박주희 (2006). 서원기도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감리교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rk, J. H. (2006). *Influence of vow prayer on identity: For Methodist Theolog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배철현 (2012). 호로즈: 미쉬나 경전해석의 원칙. **종교학연구**, 30, 1-17.
- [Bae, C. H. (2012). Horoz: The Principle of Mishnaic Interpretation. *A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0, 1-17.]
- 안근조 (2016). 입다의 서원과 하나님의 침묵: 삿 10:17-11:40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논단**, 83, 225-256.
- [Ahn, K. J. (2016). Jephthah's Vow and Reticence of God: A Rhetorical Critical Interpretation on Judges 10:17-11:40. *Theological Forum*, 225-256.]
- 이영길 (2019). 미쉬나 제3권 '나섬':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미쉬나 유대인과 함께 읽는 성서 04. **기독교사상**, 724, 129-141.
- [Lee, Y. G. (2019). The woman will go out of his house and become someone else's wife. *Christian idea*, 724, 129-141.]
- 이영길 (2020). 유대 종교법 미쉬나(Mishnah)에 나타난 여성의 권익: 혼인법과 이혼법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8, 97-130.
- [Lee, Y. G. (2020). Women' Rights in the Mishnah: In light of Marriage and Divorce Laws.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38, 97-130.]
- 조철수 (2002). **유대교와 예수**. 서울: 길.
- [Cho, C. S. (2002), *Judaism and Jesus*. Seoul: Gil.]
- 정연호 (2010).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 [Jung, Y. H. (2010). *The Historical Process of Judaism: Rediscovery of Pharisaism*. Seoul: Korea Institute Biblical Studies.]
- 성서아카데미 (2004). **그랜드 종합주석**, 고양: 제자원.

- [Bible Academy (2004). *The Grand Bible Commentary*. Goyang: Jejawon.]
- 최인식 (2008). **유대교 산책**. 경기 부천: 예루살렘 아카데미.
- [Choi, I. S. (2008). *A Judaism Walk with Jesus*. Bucheon: Jerusalem Academy Publishers.]
- 최중화 (2019). 미쉬나 소개: 오해와 편견을 넘어. **기독교사상**, 721, 126-139.
- [Choi J. H. (2019). Introduction of Mishnah: Beyond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Christian idea*, 721, 126-139.]
- 최창모 (1994). **이스라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hoi, C. M. (1984). *Israeli history*, Seoul: Korean textbooks.]
- 홍영택 (2007). 발달위기로서 이혼위기: 이혼에 대한 발달상담적 접근. **신학과 세계**, 58, 124-146.
- [Hong, Y. T. (2007). Divorce crisis as a developmental crisis: Developmental Counseling Approach to Divorce. *Theology and the World*, 58, 124-146.]
- Johnson, P (2005). **유대인의 역사1**, 김한성 옮김. 경기: 살림.(원저 1998 출판).
- [Johnson, P (2005). *A History of The Jews 1*, Trans. by Kim. H. S, Seoul: Sallim Publishing Co.(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Kolatch, A. J. (2009). **유대인은 왜?**. 김종식 김희영 역, 서울: 크리스찬 뮤지엄.(원저, 2000년 출판)
- [Kolatch, A. J. (2009). *The Jewish Book of Why*, Trans. by Kim. J. S. Kim H. Y. Seoul: Christian Museum.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Steinsalz (2006) *The Essential Talmud*, New York: A Member of the Perseus Books Group
- Sefaria (2011). Yebamot Retrieved 2022. 6.1 from https://www.sefaria.org/Mishnah_Yevamot?tab=contents
- Sefaria (2011). Ketubot Retrieved 2022. 6.1. from https://www.sefaria.org/Mishnah_Ketubot?tab=contents
- Sefaria (2011). Sotah Retrieved 2022. 6.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Sotah?tab=contents
- Sefaria (2011). Gittin Retrieved 2022. 6.1 from https://www.sefaria.org/Mishnah_Gittin?tab=contents
- Sefaria (2011). Kiddushin Gittin Retrieved 2022. 6.1 from https://www.sefaria.org/Mishnah_Kiddushin?tab=contents
- Sefaria (2011). Nedarim Retrieved 2022. 6.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Nedarim?tab=contents
- Sefaria (2011). Nazir Retrieved 2022. 6.1 form https://www.sefaria.org/Mishnah_Nazir?tab=contents